



## 당뇨로 인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(주)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

당뇨의 유형 중에는 인슐린의 분비가 전혀 되지 않는 제 1형 당뇨병과, 인슐린이 분비는 되지만 유전, 생활습관, 운동부족 등의 원인으로 그 기능이 떨어져 제 기능을 못하는 제 2형 당뇨병, 또 최근에는 한국인의 당뇨병이라 불리는 제 1.5형 당뇨병이 있다. 제 1형 당뇨병은 소아 당뇨병이라고도 불리는데, 인슐린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속수무책으로 질병에 저항할 틈도 없었다. 그러나 1921년 프레데릭 벤틱에 의해 인슐린이 개발되면서 제 1형 당뇨병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당뇨병환자의 혈당조절에 치료약제로 사용되며 삶을 이어주고 있다.

이번 방문한 (주)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(대표이사 : 파브리스 바쉬라)는 당뇨병 분야에서 80년 이상의 기술과 연구 성과를 이루어 내며 최고의 인슐린 개발 제약회사로 거듭나고 있다. (주)사노피-아벤티스는 1985년 태광약품과의 합작사를 설립하며 한국으로 진출했다. 이에 직장암, 고혈압, 죽상혈전증,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국내에 차례로 시판하면서 2005년에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24시간 지속형 인슐린 란투스®를 국내에 내놓게 되었다.

## 인슐린 분비능과 저항성 동시에 개선하는 아마반™

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는 아마반™ 정, 란투스®주, 란투스® 주 옵티셋, 애피드라 등이 있다. 2007년 5월 출시된 아마반™ 정(Amavan, 성분명 : 말레인산 로시글리타존, 글리메피리드)은 당뇨병환자의 경구용 약제로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능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약제이다. 당뇨병환자의 경구혈당강하제는 인슐린 분비촉진제,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, 당분흡수억제제 등으로 환자의 특징에 따라 처방된다. (주)사노피-아벤티스는 아마반™ 이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능을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이고,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 또는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단독으로 복용했을때와의 비교 연구에서 당화혈색소(HbA1c)의 감소효과가 우수하며, 더 많은 당뇨병환자가 치료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.

아마반™ 이 출시되었을 당시의 대표이사 제즈 몰딩 사장은 “아마반™ 은 두 가지 당뇨병 치료제를 복합



해 각각의 장점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 제품이므로 환자의 복용 편의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## 최초의 기저인슐린 란투스

(주)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당뇨병 치료제는 란투스®주인데, 이 인슐린은 기저 인슐린으로써 1일 1회 투여만으로도 피크작용 없이 기저인슐린 농도를 유지하는 최초의 장시간형 인슐린 유사체이다. 기저인슐린이란 인체에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인슐린을 일컫는데,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섭취할 경우 기본적인 인슐린에서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돼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 (주)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의 PM 이미윤 팀장은 “인슐린 분비기능이 떨어지거나 분비가 아예 되지 않는 환자들에게 인체에 있어야 할 기본인슐린 농도를 맞춰줌으로써 피크 없이 24시간 지속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

또 당뇨병환자의 당화혈색소 목표수치에 어느 인슐린보다 빠르게 도달 할 수 있게 하는데, 임상실험 결과 기존 경구혈당강하제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에게 투여,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를 2%(8.8%→6.8%) 감소시켰다. 특히 란투스는 기존의 중간형 인슐린과 비교실험에서 더 많은 환자들 야간 저혈당 없이 목표혈당에 도달하는 결과를 나타내 인슐린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. 인슐린 치료는 인슐린 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때 과도한 인슐린 용량으로 저혈당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. 특히 야간 저혈당이나 심한 저혈당은 저혈당으로 인한 혼수상태를 유발해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환자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겨줄 요인이 된다. 또 저혈당 예방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면 체중증가로 이어져 혈당조절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. 이에 이팀장은 “란투스는 인슐린 농도의 최고치 없이 24시간 지속

## 당노인을 생각하는 기업

적으로 작용하는 유일한 인슐린이기 때문에 저혈당 발생을 최소화했다” 며 “따라서 환자들에게 저혈당의 위험을 줄여주며 이로 인한 체중증가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” 고 강조했다.

2007년 6월 (주)사노피 -아벤티스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, 란투스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제(메트포민, 설폰닐우레아)를 단독 복용하는 제 2형 당뇨병환자에게 란투스를 추가하는 것이, 치아졸리디딘온 계열의 약물을 추가하는 것보다 유리 지방산 수치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밝혀졌다. 유리 지방산은 지방 분해 중 혈류에 방출되는 물질로, 당뇨병환자가 유리 지방산이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각종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.

이 연구의 책임자인 자넷 맥길(Janet McGill)박사는 “치아졸리디딘온 계열의 약제와 란투스가 대사 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점에서, 이번 연구 결과는 앞으로 당뇨병환자의 약물치료를 위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”고 밝혔다.

또 한국인 당뇨병환자에게도 일관된 혈당조절의 효과를 입증한 결과가 나왔는데,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된 임상결과에서 비교군에 비해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란투스는 기존의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와 일관되게 아시아인에서도 저혈당 위험이 낮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### 신속하게 반응하는 에피드라알

2006년 전세계에 발매된 또 다른 인슐린인 에피드라는 기존의 속효성 레귤러 인슐린에 비해 주사 후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며 짧은 작용 시간으로 인해 식사에 의한 정상적인 인슐린 분비를 더욱 촉진시킨다. 또 환자의 체질량지수(BMI)에 상관없이 일관된 빠른 작용 결과를 보여 다양한 체형의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. 이것은 체질량지수에 따라 인슐린의 작용시간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혈당의 차이가 나타나는 기존의 초속효성 인슐린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.

### 사회공헌사업, '초록산타-사랑의 인슐린'

(주)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는 당뇨병을 포함한 여러 질환을 위한 약제들을 개발·시판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사업을 통해 환자들의 치료환경 개선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.

바로 '초록 산타'가 그것인데,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환경에서 만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아와 환아가 정을 재정적, 정서적으로 지원해 투병 중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공헌 활동이다. 2004년부터 비영리 재단 '아름다운 가게'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'초록산타'는 지난 2006년부터 '초록산타-사랑의 인슐린 캠페인'을 통해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,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 투



병 생활을 하는 12명의 소아 당뇨병환자를 선발해 후원하고 있다.

- 초록산타 바자회 : (주)사노피-아벤티스 코리아의 임직원들이 기부하거나 직접 제작한 물품을 통해 시행되는 행사로,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'초록산타 기금'으로 적립된다.

- 초록산타 사랑의 당뇨학교 : 후원 환자로 선정된 12명의 소아 당뇨병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초청, 효과적인 당뇨관리와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. 지난 8월 18일, 19일 양일간 경기도에서 실시된 제 1회 '초록산타 사랑의 당뇨학교'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투병하는 환자 가족들이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교류하며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의료팀의 강의는 물론 예술 치료, 허브 체험 등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제공했다. 아름다운 가게 김흥구 팀장은 "이 행사를 통해 어려운 환이들을 단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, 이 아이들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일상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정서적, 사회적 적응을 돕는다"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.



(주)사노피-아벤티스 현재 세계 3위, 유럽 1위를 달리는 세계적인 기업이다. 인슐린 업계에서는 현재 매출 1위를 달리고 있고, 그 효과는 여러 임상 실험을 거쳐 입증되었다. 또 약제개발 투자와 연구는 물론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공헌사업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. 재정적 도움

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서적 도움에 앞장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. 아직 당뇨병 완치는 불가능하다. 그러나 환자가 완치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제약회사와 의료진들의 꾸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. (주)사노피-아벤티스의 당뇨 완치에 가까운 약제 개발과 사회공헌활동으로 당뇨로 인한 몸과 마음이 완치되는 그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.  글/홍지영 기자